

전남 지진 매년 증가...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전남연구원 "24년간 해양 144회 등 규모 2.0 이상 180회 발생" 한빛원전·서부 도서·연안 해상풍력단지·양식장 등 관심 가져야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4년6개월간 전남에서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18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발생 위치는 내륙(36회)보다 해양(144회)이 압도적으로 수치를 보였으며, 해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5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

남,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내 전남의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과 지역민이 함께 보다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진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은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6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남은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장흥 전란산 지진을 비롯해 영광·장흥·함평 등지에 해일이 발생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전남 서부 도서·연안 지역의 해상풍력단지, 양식장·어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에 이어 올해 부안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건축물 내진 설계 조례 정비, 지진재난관리 역량진단 지표 도입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196건으로, 주택, 시설물, 국가유산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당초 2027년 이후 조사 예정이었던 전라권 단층조사를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로 했다. 전남은 이번 부안지진의 진앙지로부터 42km 떨어진 영광군에 한빛원전이 위치해 지진 발생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상청 지진 관측자료를 분석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 1804회 가운데 해양에서 발생한 비율은 41.63%(751회), 육지에서 발생한 비율은 58.37%(1053회)로 해양보다 육지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복이 596회로 한반도 전체 지진 발생의 33.04%를 차지했으며, 전남(180회, 9.98%), 충남(136회, 7.54%)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전남은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라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률을 활용해 지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또 법적 장치 마련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지자체 차원의 통일된 지진재난관리 역량진단 지표를 개발·배포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지진 발생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건축물 대상의 내진 보강 공사비용 지원,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피난처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골목에서 낫술 한잔하실까요

도, 강진읍·해남 문내면·무안 청계면서 '전남형 골목 상권 사업' 마케팅·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축제·행사 등 인구 유입 기대

전남 골목 상권이 특별한 볼거리를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강진군 강진읍, 해남군 문내면, 무안군 청계면 상권 등 3곳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각종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들 지역에는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온누리상품권페이백 행사, 해남군은 상권 내 예비창업자 및 특화 브랜드 컨설팅,

무안군은 상인회 고유 브랜드 등 개발 및 주요 수요층인 목포대 학생 대상 행사 및 축제를 추진한다. 특히 무안 청계면 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과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전남도, 무안군, 청계면상인회, 목포대 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단·총학생회가 참여해 모든 사업을 연계, '한달이면 청계도 변한다'는 명칭의 로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세부 행사가 시작됐고 로컬 커뮤니티 살동인 '100배 식탁'과 '없었던 책방', 상권 아카이빙 프로젝트인 '언니들의 사진첩' 등이 열리고 있다. 상인들이 협력하는 '사장님 클래스'도 선보인다. 또 '낫술이 있는 골목 축제', '없는 디자인, 없는 티셔츠'와 같은 로컬 페스타도 열리고, 목포대 학생들의 팝업 스토어 '나의 첫 번째 영감'도 오픈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골목상권을 조성, 생활인구 유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단지 조성 광양·담양·해남·영광에 30억원 투입

생산·유통 시설·장비 지원 농가소득 향상 기여

전남도가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채소 품목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광양시, 담양군, 해남군, 영광군을 선정해 30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배 이의 품목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했다. 친환경 채소류나 과수 생산과 유통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접수,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채소 및 과수의 친

환경 인증면적 확대 계획에 대해 서류·현장평가를 거친 뒤,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 등 5명의 심사를 거쳐 4곳을 선정했다. 개소당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도·시군비 70%, 자부담 30%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0개소에 시설하우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작업장, 저온저장시설 등 165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친환경 기반이 확충되고 생산성도 높아져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 인증 이벤트

도, 30일까지 전남 쌀 답례품 등

고향사랑기부도 참여하고 전남 쌀도 선물로 받아주세요.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전남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전남 쌀 소비 촉진 활동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농협은행을 통해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전남 쌀이 추가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추가 답례품은 2만 원 상당의 나누우리쌀, 왕건이탄남쌀, 황토랑쌀, 나비쌀, 수호천사건강미 등 전남 햅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전남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전남 농가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 공무원 대상 '전기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전남도는 최근 전기차 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순천과 강진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100여 명의 전기차 운행 공무원이 참석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자동차의 구조와 주요 안전 시스템에 대한 강연에서 배터리 관리 및 충전 안전 수칙 등 전기자동차의 오해와 사

실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평소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만약의 사고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기차 안전운행 교육을 확대해 전기차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관광재단 목포서 마이스 산업 포럼 개최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31일 '목포 해관 1897'에서 전시 컨벤션 전시장,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 마이스 데이(MICE DAY)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포럼은 전남도의 전시 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 해관1897은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해 눈길을 끌었다.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산업 동향과 전남의 잠재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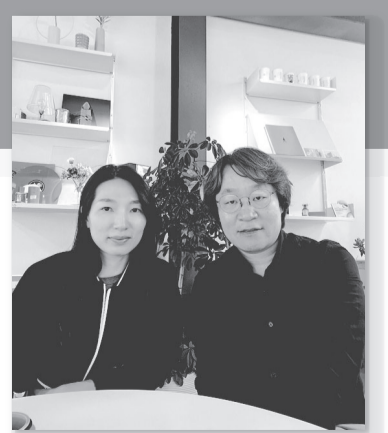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